

# 北 일방주장 계속땀 공단 존폐 기로

북한의 핵실험(5·25)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긴박한 가운데 남북한 당국이 11일 개성공단에서 공단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만나지만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지난 4월21일 제1차 ‘개성접촉’ 때 남북이 확인한 입장 차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으로, 이번 회담에서도 남북간 이견이 그대로 노출돼 접점을 찾기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특히 1차 개성접촉 때와 비교해서도 우리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좁아졌다.

우선 당시 ‘23일’이었던 현대아산의 개성공단 주재원 유씨와 여류자간은 10일 현재 ‘73일’로 늘어났다.

또 핵실험에 이은 우리의 대량살상 무기 확산방지규약(PSI) 가입과 북한의 정전협정 불구속 선언 등을 계

**■남북 오늘 개성회담 대화동력 이어갈까**  
**南 “여류자 조기 석방·체류자 안전보장” 요구**  
**北 “재계약 조건 중시”...현안 싸고 남북 기싸움**

기로 긴장수위가 올라감에 따라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신변안전 문제는 더욱 부각됐다.

즉 우리 대표단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다른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개성공단의 본질적 사안으로 규정한 체류인원의 신변 안전 보장 문제, 그 중에서도 여류자 문제 등을 최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토지사용료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관찰시키는 것을 이번 회담의 목표로 삼고 있는 듯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1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동 임금, 각종 세금 등 개성공단 관련 법규들과 계약의 효력을 선포한다”고 통보한 만큼 이번에는 구체적인 요구 수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회담에서 보일 북한측 태도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북측이 유씨 문제와 관련, 우리 당국이 갖고 있는 공금증을 일부나마 해소해 줄 것이냐, 임금인상폭 등을 제시하면서 추가적인 협상의 문을 열 것인지를 회담의 성과 유무를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북측이 유씨의 상태를 확인시키거나, 조사결과 및 향후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개성공단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 쪽과 협상을 할 의지가 있음을 보일 경우 남북은 최소한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약 북측 대표단이 유씨 문제에 대해 계속 합의로 일관하면서 임주업체들이 수용기 힘든 임금 및 토지사용료 수준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뒤 협상 여지를 남기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과 관련한 당국간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아파트형 공장 입주 기업들을 중심으로 짐을 싸는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회담은 개성공단을 끌고 갈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북한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北 붕괴 대비 韓美 3대작전 대비를”

美 브루킹스연구소 오한런 연구원 주장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 미국은 주요하고 직접적인 역할을 준비해야 하며, 특히 핵물질 위치 파악 및 확보 등 3대 임무를 포함한 작전의 기본 개념을 한국, 중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한런 선임연구원은 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붕괴 시나리오’라는 글을 통해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핵물질의 위치 파악 및 확보 ▲무정부 상태인 북한의 질서 회복 ▲북한 주민에 대한 기본 생활품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등을 미국이 미리 준비해야 할 3대 임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붕괴 과정에서 핵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약동이라면서 핵물질 위치파악 및 안전한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한국군과 미군이 협력해 북

- ① 핵물질 확보
- ② 北 질서 회복
- ③ 생활품 공급

한의 무정부 상태를 종식시키고, 북한군의 일부가 정권 붕괴 과정에서 한국을 공격할 경우 이를 격멸시키는 한편 북한 괴뢰 지도부를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식량과 의약품, 주거지 등을 가능한 한 신속히 제공하라는 것이 핵심적이며, 이는 외국군의 북한 주둔에 대한 반발기류를 잠재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싱크탱크의 하나로, 이날 글은 미국 내에서 작전계획 5029 논의와 함께 미국 내에서 북한 붕괴에 대비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한런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와 관련해 미국이 직면할 4가지 주요한 과제 중 첫번째로 3대 임무를 포함한 주요 작전에 대한 확고한 개념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 안전확보를 위해 유사시 북한 내의 육·해·공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러 북한의 핵물질 확보를 위해 미군 특수부대가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유사시 특수부대의 신속 투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 부대와 한·미가 타협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신종플루 대유행 근접”

WHO, 경보 6단계 격상 가다

후쿠다 게이치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차장은 9일(현지시간)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염병 경보를 최고인 6단계(대유행 선언)로 격상하는 쪽으로 매우 근접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후쿠다 사무차장은 이날 제네바에서 진행된 전화 기자회견을 통해 “1천200여건의 감염자 수를 기록한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지역사회 수준에서(바이러스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말로 대유행 선언에 매우, 매우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WHO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공식으로 보고된 신종플루 감염자 수는 멕시코와 미국을 비롯한 73개국에서 2만6천563명으로 늘었으며, 사망자는 모두 140명에 이르고 있다.

신종플루는 지난 4월 23일

WHO에 공식 보고된 이후, 40여 일만에 북미와 중남미, 유럽, 아시아, 대양주 등 아프리카를 제외한 5대륙으로 번졌고, 감염국가 수로 보면 전 세계의 3분의 1을 훨씬 넘어섰다.

한편 한국에서는 첫 호주 입국 감염환자를 포함한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가 5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환자 수가 50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달 7일 뉴욕에서 귀국한 뒤 확진 환자 관정을 받았던 동료 연구원(38·남)을 비롯해 미국 입국자 3명, 호주 입국자 1명, 필리핀 입국자 1명 등 5명이 신종플루 환자로 확인돼 국가 지정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10일 현재 신종플루 환자 수는 53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46명이 완치되었다. /연합뉴스



필리핀 “집권 연장 개헌 반대” 시위  
 아로요 대통령의 집권 연장 개헌 움직임에 반대하는 필리핀 시위대들이 10일 마닐라 마커티 상업지구에서 아로요 대통령의 인형을 들고 개헌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러 “北,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 입수”

러시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으나 미사일 발사시점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러시아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우리는 (북한이 발사하려는) 미사일의 종류와 재원 등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으나 발사 시점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소식통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러시아는 즉각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이 언급한 미사일이 단거

리인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 한 관리는 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가 있다는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교관은 또 북한이 서해와 동해의 특정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항행을 금지한 조치는 새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화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서래마을 영아유기’ 佛 여성 재판 시작

佛 언론 ‘무기징역형’ 예상

서울 서래마을의 영아 유기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수사를 받아온 프랑스인 베로니크 쿠르조(41·여)가 9일(현지시간) 프랑스 서부 투르 지방법원에 출석해 살인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3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 수감된 지 2년 6개월 만에 열리는 쿠르조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은 오는 17일까지 9

일간 계속된다.

초조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출석한 쿠르조는 법정 내 피의자 석에 혼자 서서 재판에 임했으며,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눈물을 쏟는 등 약한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자주 거친 숨을 몰아쉬기도 했다고 TF1 방송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프랑스 언론들은 쿠르조의 살인 혐의가 최종 인정되면 프랑스 형법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쿠르조는 2002년과 2003년 서울의 서래마을에 살던 당시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했으며 한국으로 가기 전인 1999년 프랑스의 집에서도 또 다른 영아 1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2006년 7월 서래마을의 집 냉동고에서 2구의 영아 시신이 발견된 뒤 쿠르조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한국 수사당국의 DNA 분석 결과 쿠르조 부부가 이들 영아의 부모임이 확인된 뒤에야 범행을 털어놓았었다. /연합뉴스

공정·평등·신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큰 눈으로 보아야 할 때  
 더 큰 시선으로 보면 더 밝아집니다

국회  
 국민대표단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